가볼만한 생태산촌

Recommendable ecology forest-mountain areas

글 | 李載蒯
(Lee, Jae Myun)

산림기술사,
기술사회 홍보위원
산지기기술사사무소 대표

E-mail : san3698@naver.com

The development of the mountain areas is the economic solution to the forest-mountain region that is becoming more hollw by the day. It can also be said as providing a rest area for those that live in the cities who long for their child-hood memories. This development will bring the vitalization of the regional economy and the balance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In order to bring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the mountain areas, educating a dedicated professional forest-mountain expert is a must.

무더운 여름이면 생각나는 것이 있다. 어릴 적, 아버지께서 가뭄 때 농사에 쓰시려고 산속 계곡을 막아 물을 가두었던 곳이 있었다. 그 곳에서 허리에 새끼줄을 맨 나를 누나가 저 건너에서 당겨주면, 헤엄쳐 건너가면서 더위를 날리는 차가운 계곡물의 시원함을 느낄 수 있었다.

솜씨 좋으신 아버지께서 흙에다 석회를 넣어 직접 찍은 흙 벽돌로 만든 우리집은 시원한데다 뒷산에는 아까시나무를 심어 방에 누워 있으면 방안에 향기가 가득했다. 철 따라 아까시 꿀을 따러오던 양봉하시는 분이 주던 꿀맛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지금 살고 있는 집 앞에도 아까시나무가 있어 꽃이 필 때는 향기가 방안 가득 들어오고 방안에 누워 있으면 철마다 바뀌는 숲 내음으로 마치 휴양림에서 자는 듯한 느낌을 준다.

둘째 아들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서울에서 살다가 공기 좋은 수리산 밑으로 이사와 산 지가 벌써 13년이 되었다.

아들의 건강도 좋아지고 공기도 좋아서 아내와 아이들이 큰 아파트로 이사 가자고 해도 나는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다.

올 여름 유난히 더 더웠기에 맑은 공기와 시원하고 깨끗한 계곡물이 흐르는 산촌이 더 생각난다. 모두들 나이 들어가며 느끼는 그리움일 것이다. 그럴 땐 고향 같은 산촌마을을 찾아가 몸과 마음을 휴양하면 좋을 것이다.

경제발전으로 국토의 많은 부분이 개발의 열풍 속에서 도시화되어 젊은 사람들이 도시로 나가 산촌마을은 노령화, 공동화(空洞化)되며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이처럼 낙후된 산촌을 산촌지역의 풍부한 산림, 휴양, 인적, 자연자원을 연계 개발 살기 좋은 산촌으로 조성하여 산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 있는 국가발전을 이루고자 필자가 직접 설계하였던 산촌마을을 소개하고자 한다.

산촌개발사업 목적

산촌개발 사업의 목적은 산촌지역의 산림 및 고유자원을 활용하여 소득원 개발과 환경개선사업을 함으로써 낙후된 산촌을 살기 좋은 마을로

개발하여 전 국토의 46%를 차지하고 있는 산촌의 진흥 및 활성화, 산촌의 효율적인 관리 기반 구축을 통한 산림경영의 거점지역으로 육성, 산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나아가 국가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

근거법령은 산림기본법 제 8조 및 동법 제 28조, 동법시행령 제 12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1. 곤드레 (한치) 마을

쉬어가는 구름과 벗하고 황금이 있는 마을 정선군 동면 몰운1리는 화암동굴, 화암 약수를 지나 가파르게 깎아진 기암괴석이 좌우로 위치한 길을 따라 들어가면 나오는 몰운대에 항상 구름이 머물러 있어 몰운(沒雲)리라 불리는 산촌마을이다. 몰운1리에는 한치마을이 있는데 마을경계지점에 창재라는 고개가 있어 옛날에 등짐을 지고 이 고개를 넘으면 땀이 난다하여 한치(汗峙) 마을이라 불리었다고 한다. 한치 마을은 금 · 은 광산이 폐광된 후 개발과는 거리가 멀어졌다. 이를 정선군에서 산촌특화마을로 선정, 산촌지역의 풍부한 산림 및 휴양자원을 활용하여 소득을 증대시키고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낙후된 산촌을 살기 좋은 마을로 개발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토발전과 임업경영의 거점 지역으로 폐광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설계 당시 산림내로 임도를 개설하고 녹색관광센터 건축과 약 30ha에 곤드레 나물, 약용수 재배, 마을의 특산물을 이용한 산나물채취 체험과 같은 프로그램을 마련, 산촌체험 관광지로 조성했다.

설계 후 직접 찾아가 본 한치 마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려고 한다.

2008년 여름 교회 청년부수련회 장소를 추천해 달라고 해서 한치 마을을 소개하고 다녀왔다. 안내를 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가족 여행 겸 즐겁게 동행을 하게 되었다. 방과 거실, 주방이 있는 한 채와 2층에 있는 방 하나를 예약했다. 2층에 있는 방에는 다락방도 있었다. 다락방에는 별을 볼 수 있는 하늘창이 있어서 서로 다락방에서 자겠다고 난리였다. 센터 옆에 취사를 할 수 있는 별도 건물이 있어 고기, 감자, 옥수수를 마음대로 구워 먹을 수 있어 좋았다.

앞산에 구름이 하얗게 피어오르는 풍경을 본 한 자매가 "산불 났나 봐요?"하는 말에 우리 모두 웃고 말았다.

이름대로 구름이 내려앉은 풍경이 아름다워 누구든지 시인이 될 것 같은 마을이다.

근처에 폐광이 있고 그 앞으로 한 여름에도 차가운 개울이 굽이굽이 흐르고 있어 아이들이 재미있게 물놀이도 할 수 있었다.

단체로 갈 경우 넓게 쓸 수 있는 녹색관광센터, 화목 찜질방, 간이도서관, PC방이 있어서 가볼만한 곳이다.

홈페이지 http://www.mallun.or.kr
(강원도 정선군 동면 몰운1리 한치마을)

〈그림 1〉 굴피나무 지붕의 화목찜질방

2. 뼝창 마을

래프팅과 함께하는 산머루 마을 영월군 문산 1리 뼝창 마을은 동강의 중류부에 위치한 강변마

을로 마을 아래쪽에는 모래톱이 펼쳐지고 깊은 소를 이루고 있는 하소가 자리잡아 신비스러움을 느끼게 해주는 절경이 있는 동네지만 문산교가 개통되기 전에는 동강을 줄배로 왕래하던, 아주 교통이 불편했던 마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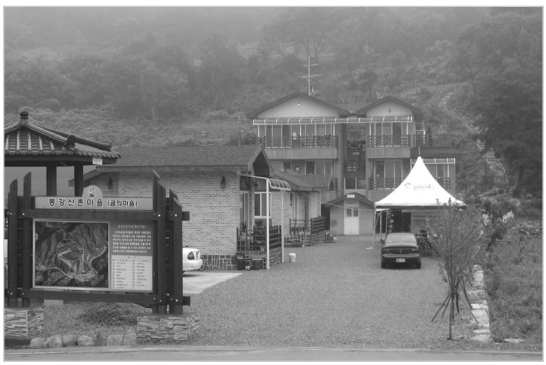
문산교 개통 후 교통의 편의성이 좋아져서 녹색관광센터와 동강래프팅 출발지가 들어서게 되었다. 래프팅, 동강 낚시, 산촌 관광 등 관광 상품의 개발로 관광객이 많아졌다.

산촌개발 이후 필자가 어느 여름 휴가 예약을 하기 위해 마을 이장께 전화하였더니 이장께서 여기 저기 연락을 해서 작은 방 하나를 겨우 예약 할 수 있었다. 여름 휴가철에는 방을 구하기 힘들 정도로 관광객이 증가한 것이다.

전에 우리 가족이 갔을 때는 굽이굽이 산을 돌아서 들어갔는데, 지금은 터널이 뚫려서 오가는 시간도 단축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한다.

현재 산촌과 동강 래프팅을 연계한 녹색관광, 산채재배, 아이들과 함께 만들기(나무곤충)등의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산촌지역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또한 뼝창트레킹을 체험함으로 동강의 특징적인 지형인 "뼝창"(절벽의 강원도 사투리)을 감상하며 주위의 나무나 풀 등 다양한 식물을 관찰할 수 있다. 지역 축제로는 단종문화제, 동강축제, 동강사진축제, 김삿갓 문화큰잔치, 동강 물소리



〈그림 2〉 뼝창 마을 녹색관광센터

합창 페스티발 등이 있다. 아쉽게도 방문했을 당시 축제기간이 아니었지만 다시 여행을 가게 된다면 꼭 축제기간에 맞추어 가보고 싶다.

가족 및 친구들과 함께 여행하면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고 아이들에게는 좋은 자연체험교육이 될 수 있어 좋다.

운영매니저로 있는 김영걸 실장이 서울에서 살다가 산촌으로 내려와 열성적으로 운영하시는 것을 보면 보람도 있고, 건강이 좋지 않았던 부인이 산촌으로 내려 온 후 건강을 회복하였다는 소식이 있어 내 일처럼 기쁘다.

홈페이지 http://dongkangnet.com/
(강원도 영월군 문산1리 뼝창마을)

3. 하늘별 마을

별과 대화하는 하늘별 마을은 만행산 천황봉(해발909m)자락에 위치한 전형적인 산촌마을이다. 설계 당시 마을에 거주하는 천문관측을 지도하신 경험이 있는 지구과학 선생께서 녹색관광센터에 천문관측시설을 설치하면 천문관측 체험을 통해 관광객을 많이 유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견에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천문관측에 주안점을 두어 사업을 진행하였다. 마을 이름도 상신마을에서 하늘별 마을로 바꾸었는데 이제는 하늘별 마을로 더 유명하다. 또한 체계적인 교육과 실습, 자격시험을 통해 마을청년들이 직접 천문지도자가 되어 천문관측의 전문성을 높였다.

현재는 자연체험 및 천문관측 등을 목적으로 한 학교나 단체학생 관광객들이 증가 추세이다.

이렇게 하늘별 마을은 단순한 산촌체험 뿐만 아니라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천문이라는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개발한 덕분에 다른 산촌마을과는 차별되고 경쟁력 있는 산촌마을이 되었고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녹색관광센터 앞 천황봉에서 흐르는 개울을 보로 막아서 친수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천황

봉까지 등산로를 개설해서 관광객들에게 신선한 공기와 깨끗한 물을 제공해 주어 심신의 피로까지 풀어줄 수 있다.

홈페이지 http://www.skystarville.or.kr/
(하늘별 마을 만행산 천문체험관)
전북 남원시 산동면 대상리

〈그림 3〉 하늘별 마을 천문관측시설

대도시에서 복잡하고 여유 없이 생활하는 도시인들은 어릴 적 고향의 향수를 못 잊어서 산촌으로 돌아오는 현상이 늘고 있다. 또한 교통이 불편했던 예전과 달리 도시와 산촌의 접근성이 용이해서 삼림욕 및 산촌문화체험을 경험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내 몸을 치유하는 숲' (우에하라 이와오 지음, 박범진 옮김)에 보면 독일의 바트 뵈리스호펜시의 의료보험에 의한 휴양제도로 2000년 당시 독일에서는 4년에 한번씩 3주일 동안 쉬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였다 .

휴식은 집에서 쉬는 것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각 개인은 의료보험 회사를 통해 독일 전국에 있는 휴양지로 가야만 한다.

우리도 건강보험공단에서 4년에 3일씩이라도 신선한 공기와 깨끗한 물,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산촌으로 의무적으로 휴양을 보낸다면 숲에 의한 치유가 되어 국민은 건강해지고 건강보험공단 치료비가 적게 지출되어 재정이 건전해지며 산촌은 활력이 넘치리라 생각해 본다.

일본의 정신과 의사 가미야 미미코의 저서 '삶의 목표에 대해서' 중에 이런 말이 있다. "자연이야말로 인간을 만든 모태이며, 언제 어떤 경우에도 상처 입은 사람을 맞이하여 치유한다." 이런 사실은 인간이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로부터 고민하는 사람, 고독한 사람, 왕따 당한 사람은 모두 자연의 품으로 돌아가려고 했다. 심각한 고민이 있는 사람은 어떤 책보다 어떤 사람의 조언보다도 자연 속에 몸을 맡기면 자연이 가진 치유력이 내적 외적으로 작용하여 치유되고 새로운 힘을 얻는다고 한다.

도시화, 공해, 스트레스 등으로 고민할 때 청정한 산촌을 찾아 며칠 휴양하면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니 기술사 여러분들께 산촌 방문을 적극 권유한다.

이러한 산촌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숲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숲가꾸기사업,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 하고 맑은 물을 저장하는 사방댐, 산림경영 기반시설인 임도,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휴양림, 등산로, 치유의 숲 조성 등 각종 산림 사업이 확대되어 전국토의 64%인 산림을 아름답고 가치 있게 가꾸어 갈 기술사의 활약이 더욱 기대된다.

〈그림 4〉 구례 위안산촌 사방댐 물방석

〈원고접수일 2010년 8월 10일〉